

박상우 장관, 늘봄학교 재능기부 일일강사 참여

- 22일, 서울 신우초등학교 찾아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-

-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3월 22일 오후 서울 신우초등학교(교장 김은숙)를 방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“늘봄학교” 재능기부를 위한 일일강사로 참여하였다.
 -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저출산대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.
 - 이번 일일강사 참여는 국무위원이 부처 소관업무를 직접 교육하여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박 장관은 교통안전 전문강사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였다.
 - VR(가상현실, virtual reality) 기기를 이용한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법, 교통안전 표지판의 의미, 안전한 보행방법 등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.
- 박 장관은 신호등과 횡단보도 교보재로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다. 어린이들에게 “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위해 계속 열심히 일 하겠다”고 약속도 하였다.
- 향후,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논의하여 늘봄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2024. 3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